

건축단상 2제

Two Thoughts on Architecture

김낙중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by Kim Nak-Jung

정보화 시대

금년도에 들어와서, 새천년이다 정보화 시대다 하여 세상이 더욱 떠들석하다. 똑같은 날인데도 200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갑작스레 새 날과 새 세상을 맞은 듯 하다. 실제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기말을 지나왔고, 다가올 새세기는 더욱 심한 변화와 속도를 예견케 한다.

건축도 금세기에 들어 모던과 탈 모던의 큰 흐름중에 다양한 분화를 겪어 왔으며, 한 흐름이나 주장들이 이해되고 검증되어질 여유도 없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접하곤 해왔다. 그것도 과거의 계몽주의적 시대와는 달리 한시대를 주도하는 큰틀이 없이 동시 다발적인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 현재의 좌표를 읽고, 앞날의 좌표를 예측하여 보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좌표를 읽을 틈을 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균림해오던 형이상학적 틀이 흔들리고 다윈, 불확실, 관계, 타자...등의 상대적 가치관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중심없이 이동하는 - 부유하는 좌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듯 다원화되고, 불확실하며, 상대적 가치관이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답게 건축도 다양한 해석과 제스처어로서 부유하는 듯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통하는 -anything goes-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진리, 본질, 영원, 순간, 절대, 상대, 고급, 저급....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선택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의 당연한 현상으로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는 초조하게 우리들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극대화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는 오히려 그 의미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서 진실을 담고 있는 정보를 가려 내야만 하는 처지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여과장치와 기준, 참조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조점은 그 시대의 급변하는 취향에 편승하는 공식적 관점으로만은 얻을 수 없고, 역사와 전통속에서 변하지 않아온 가치를 찾아내는 통시적 관점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적 역사와 공간적 우주는 그 자체가 순환의 장(場)이다. 건축도 그안에서 항성을 유지한 채 단지 시대의 취향에 따라 그 모습(appearance)만을 달리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반(反)속도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시대의 취향(fashion)보다 고전의 가치를 탐구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홍수속에서 진실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참조점을 찾을 수 있고,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속도와 변화의 시기일수록 과거의 교훈에 눈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축을 평가한다는 일

우리 사회에 건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각종 설계 경기가 급증하여 왔으며, 그 방법도 다양해졌다. 설계경기가 결국 여건에 맞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 아쉬움이란 선정된 안이 최선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주된 원인은 크게 건축을 평가하는 안목의 미흡과 평가방법의 불합리로 볼 수 있다. 건축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그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건축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기능, 형태, 공간의 구성을 통하여 미(美), 상징, 시대성 등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어렵고 모자란 일이다. 미술이나 건축을 평가한다는 일은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될 일이지, 분석적, 계량적 방법으로 평가될 일이 아니다. 즉, 깨달음의 차원이지 지식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건축심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수결이나 점수제와 같은 계량식의 심사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턴키(turn-key)심사와 같이 형태의 의미나 공간의 질, 통합적 상징성들과 같은 건축의 핵심가치가 구조적 안정성이나 기계설비의 효율성, 경제논리 등과 같은 부차적 가치에 의해 전도될 수 있는 평가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의 건축도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 핵심가치는 절대성을 갖고 있지만, 부차적 가치들은 대개 선택의 문제이다. 통합적 안목은 건축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탐구하는 중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은 나눠줄 수 있지만, 깨달음은 나눠줄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 한방울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건축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지식에 직접 의존하여서는 불가능하고,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다수결이나 점수합산제와 같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건축을 평가한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통합적 안목을 갖춘 현자 한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다수의 그렇지 못한 전문가 보다 나을 것이다. 세계적 걸작으로 꼽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심사회에 늦게 도착한 에로사리넨에 의해서 낙선작 중에서 부활하여 실현된 일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을 통해 통합적 안목을 갖춘, 이러한 현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이다. 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역시 현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후손들에게 건축문화 유산으로 남겨질 중요한 작업을 현재의 모양껏 추기식의 제도로 계속해 나갈 수는 없다. 최선이란 항상,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여건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선, 평가의 결과를 좌우하는 심사위원의 선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교수 등 학계에 종사하거나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라면 무조건 이러한 현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단순한 관념을 버리고, 그사람의 연구분야, 작품성향, 경력 등의 일반적 배경(background)외에 그사람이 심사에 참여했던 프로젝트(project)의 사후 평가를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람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해당 프로젝트의 심사후 평가와 입주후 평가, 각자의 심사평 및 발언록 등을 데이터화 함으로서 심사실명제를 통한 심사위원, 즉 현자 pool을 평소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올바른 심사위원의 선정이 훌륭한 건축 문화를 남기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다시 말하지만, 건축을 평가한다는 일은 지식과 계량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과 질의 문제이다. 건축의 핵심가치와 부차적 가치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모양 갖추기식의 심사를 거치는 지금의 심사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